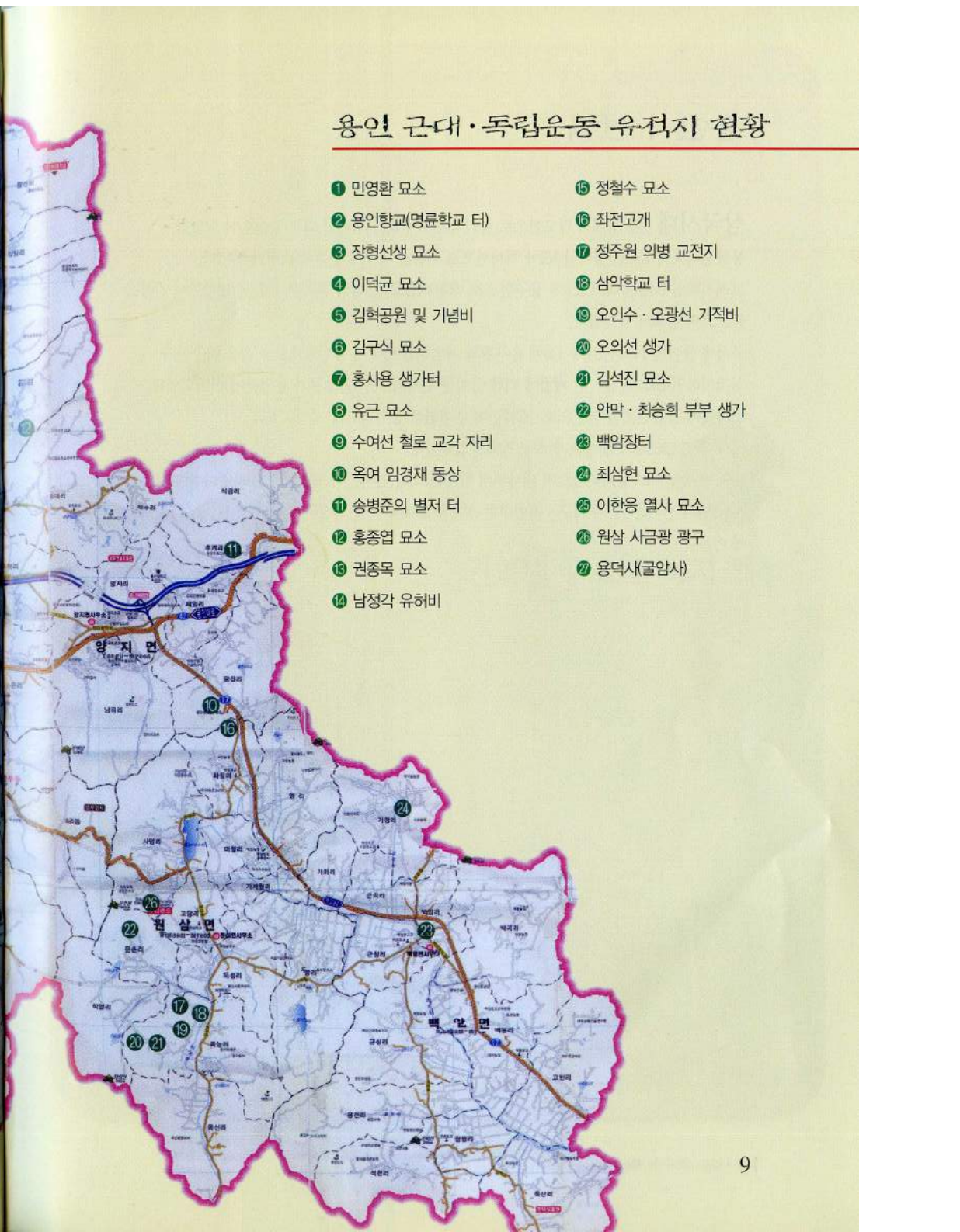




용인 근대·독립운동 유적지 현황

- | | |
|----------------|-----------------|
| 1 민영환 묘소 | 15 정철수 묘소 |
| 2 용인향교(명륜학교 터) | 16 좌전고개 |
| 3 장형선생 묘소 | 17 정주원 의병 교전지 |
| 4 이덕균 묘소 | 18 삼악학교 터 |
| 5 김혁공원 및 기념비 | 19 오인수·오광선 기적비 |
| 6 김구식 묘소 | 20 오의선 생가 |
| 7 홍사용 생가터 | 21 김석진 묘소 |
| 8 유근 묘소 | 22 안막·최승희 부부 생가 |
| 9 수여선 철로 교각 자리 | 23 백암장터 |
| 10 옥여 임경재 동상 | 24 최삼현 묘소 |
| 11 송병준의 별저 터 | 25 이한응 열사 묘소 |
| 12 홍종업 묘소 | 26 원삼 사극광 광구 |
| 13 권종목 묘소 | 27 용덕사(굴암사) |
| 14 남정각 유허비 |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 36번지



1905년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순국한 충정공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묘는 예초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마을에 봉분 없이 평장되었으나, 1942년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의 자리로 이장되었다. 1959년 3월 묘역 안에 신도비가 건립되었는데, 이승만(李承晩)의 친필 제자(題字)와 선생이 자결하였을 때 남긴 유서도 함께 각자되어있다. 경기도 기념물 13호이다.

민영환의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는 문약(文若), 호는 계정(桂庭)으로 현재의 서울 충정로에서 호조판서를 지낸 겸호(謙鎬)의 아들로 태어났다. 민영환은 1877년(고종 14년) 동몽교관이 되었으며, 이듬해 문과에 급제한 뒤 국왕 자문기관인 홍문관에서 관직을 시작하였다. 1895년 주미전권대사에 임명된 이후 이듬해 특명전권공사로 러시아황제인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하였다. 이를 위해 민영환은 5월 캐나다를 거쳐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후 상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네덜란드·독일·폴란드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 대관식에 참석하였다. 약 3개월간의 러시아 여행을 마친 후, 그는 또 다시 이듬해 영국 등 유럽 6개국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됨에 따라 상



〈민영환 선생〉

가포르-인도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러시아에 들어가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한 이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였다. 두 차례의 외유를 통해 서구의 근대식 문물을 경험한 민영환은 고종 황제에게 정치, 군사 제도의 근대적 개혁을 건의하였으나 실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는 독립협회 등 사회단체와 재야인사들과 교류를 통해서 자주민권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나빠지고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결국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의 자주권을 박탈하였다. 충정공은 원임 의정대신 조병세(趙秉世)등 문무백관들과 상소를 올려 조약에 찬동한 5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어지자 결국 1905년 11월 4일 새벽, 국민과 각국 공사에게 고하는 유서 세 통을 남기고 단도로 자결하였다. 그때 나이 45세였다.

그의 자결 소식이 전해지자, 조병세를 비롯한 참판 홍만식·학부주사 이상철 등 많은 인사들도 자결을 하였고, 그의 인력 거꾼도 목숨을 끊어 일제 침략에 항거하였다.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후하게 예장하였고, 대방보국숭록대부의정대신(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大臣)으로 추증되었으며, 의절의 정문도 세워졌다. 1962년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었다.



● 참고문헌

- 이만수 역·민홍기 편, 『민충정공유고』, 일조각, 1996.
- 민영환, 조재근 역, 『해천추범-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 책과함께, 2007.

●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수원 ↔ 수지행 버스 21번, 67번, 1001번, 2002번 타고 구성초등학교에서 하차
- 자가용 : 마북삼거리(용구대로)에서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방향 → 구성초등학교 옆길로 좌회전 (민영환 선생 묘 표지판)

● 주변 볼거리

- 용인향교 : 용인시 구성구 언남동 335
- 한국미술관 : 용인시 수성구 마북동 73-1 ☎ 031-283-6418

용인 최초의 신식학교 <명륜학교>와 맹보순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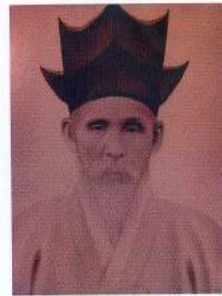
기흥·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335 용인향교



명륜학교는 용인시 향토유적 제 1호인 용인향교(일명 구성향교) 내에 설립되었다. 용인 최초의 신식학교인 명륜학교는 구한말 나라의 위기를 근대교육으로 극복하자는 애국사업의 일환에서 1906년 개교하였다. 용인지역 지사들의 우국지정으로 탄생한 명륜학교의 초대 교장은 학부대신을 역임한 이도재(李道宰) 선생이었다.

당시 명륜학교에서 가르치던 과목은 서당, 또는 향교나 서원에서 행해졌던 전통 한학교과와 역사·과학 등 근대적인 교과가 혼합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명륜학교가 전통교육 기관에서 근대학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명륜학교의 설립자인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 1862~1933) 선생은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한 구한말 대학자였다. 선생의 명륜학교 제자들은 모두 민족의식이 투철한 인재로 성장하였다. 그 제자들 중에는 만주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김혁 장군과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영선 선생, 3·1운동 때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피체되어 옥사한 어대선(魚大善) 지사 등이 있다. 또한 선



<맹보순 선생>



<학교터에 세워진 명륜당>

생의 제자 중에는 원삼면의 정동로, 신갈리의 이희식, 평택의 정희식 등과 같이 향리에 남아 후진양성에 힘썼던 교육자들도 있다.

1908년 일제의 압력에 의해 명륜학교가 용인보통학교로 바뀌게 되자, 선생은 수원으로 올라가 기호학회에서 활동하였다.

국권 피탈후 일제가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려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선생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이동녕교장에게 이를 알려 일제의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게 하였다. 이후 동전 선생은 상현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전력하였으며, 충렬서원을 다시 세우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심곡서원에서 병을 얻어 1933년 8월 7일 삶을 마감하였다.



● 참고문헌

- 용인시 『용인시문화재총람』, 1997. • 박환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한자료원, 2003.
- 정양화, <동진 맹보순>(용인시민신문)제422호, 2008. 5. 29.

●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강남역방향 : 2002번 광역버스, 잠실역 방향 : 1001번 광역버스
오리역 방향 : 33, 34(마을버스) 구성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차
- 자가용 : 죽전역 지나 구성동주민센터(향교길)-용인향교 하차

● 주변 볼거리

- 용인향교 : 용인시 구성구 연남동 335
- 한국미술관 : 용인시 구성구 마북동 73-1 ☎ 031-283-6418

만주 독립군 김혁 장군 기념비

기흥·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성지중학교 앞 김혁공원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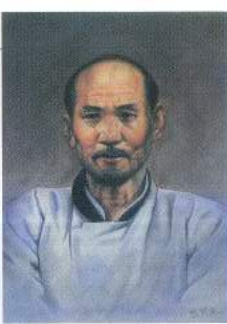
김혁(金赫, 1875~1939) 장군을 기리는 '김혁공원'은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학교 뒤편 성지중학교 앞에 위치해 있다. 김혁 장군은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만주에서 치열하게 무장 항일투쟁을 벌였던 대표적인 독립군 지도자였다. 이러한 김혁 장군의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자 경주김씨 갈천공파 후손들이 이곳에 1985년 8월 15일 독립기념비를 건립하였다.

김혁은 1875년 10월 16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학소(學韶)이며, 호는 오석(烏石, 五石)이다. 1898년 6월 대한제국의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1월 졸업하였으며, 육군참위로 경성시위보병대에 배속되어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명령이 떨어지자, 낙향하였다. 1919년 3월 30일 용인 기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해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곧 만주로 망명하였다.

만주 무송현에서 그는 흥업단(興業團)에 가입해 부단장으로 활동하였고 1920년 10월 청산리에서 일제 정규군과 일대 격전을 벌여 승리로 이끌었다. 그 후 김혁은



〈김혁 장군 유묵(육군사관학교)〉



〈김혁 장군 초상〉

1925년 3월 흑룡강성 영안(寧安)현에서 21개 독립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신민부(新民部)의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신민부의 군사부 위원장은 김좌진, 외교부 위원장에 조성환이었다. 김혁은 신민부가 설립한 성동(城東)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 사관학교는 연 2기의 군사교육을 실시했는데, 약 5백 명의 생도가 배출되어 항일전쟁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김혁 장군은 1928년 3월 신민부 본부를 급습한 일본 경찰들에 의해 피체되어 10년형을 언도받았다. 옥고로 인한 병을 얻게 된 장군은 1935년 8월 가석방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1939년 4월 23일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약도



참고문헌

- 박환, 『항일무장 독립운동가 김혁』, 학민사, 2003.
- 장세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홍범도의 독립전쟁』, 역사공간, 2007.
- 박환, 『만주지역에서의 김혁장군의 민족운동 전개』, 『용인항토문화연구』제8집, 2008.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 앞 하차 성지중학교 방향 도보로 10분 거리
강남역/양재 5001, 5003, 2002-1, 미금역 앞-67, 820, 수원역 66, 66-4, 1010-3, 10-4, 6000

주변 볼거리

- 한국민속촌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07 ☎ 031-288-0000
- 경기도 박물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산 19번지 ☎ 031-288-5300

언론인 석농 유근 선생 묘소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공원 내



한말 국학자이자 언론인인 유근(柳瑾) 선생은 1861년 9월 26일 양지군 주서면(현 처인구 마평동)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경집(敬集), 호는 석농(石農)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아버지 유최근(柳最根)은 수릉참봉(綏陵參奉)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한학과 문장에 뛰어나 탁지부 주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임한 후 독립협회 등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1898년 4월 박은식·장지연 등과 함께 《황성신문》을 만들어 주필과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후에 사장에 취임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명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장지연과 함께 완성하였다. 이후 최초의 한문자전인 『신자전(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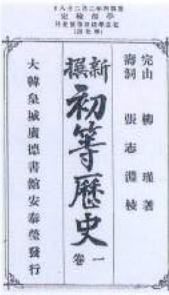
<김량장동 석농길>

字典』 발간에 앞장섰고 중앙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해 활동하였다.

유근은 역사서를 편찬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활용했는데,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1906년)와 『초등본국역사(初等本國歷史)』(1908), 『신찬초등역사(新撰初等歷史)』(1910) 등을 발간하였다. 1919년 4월 개최된 13도 대표자의 국민대회에 대중교계 대표로 참석하였고, '한성정부'의 정부체제 선택과 각료 선정에 참가하다가 붙잡혔다.



<유근 선생>



<신찬 초등역사>

이후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해 양기탁과 함께 편집감독으로 추대되는데, '동아일보'라는 이름도 그가 지은 것이다. 그러나 잦은 감옥생활과 오랜 숙환으로 1921년 5월 20일 61세의 일기를 마쳤다. 당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추도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3월 1일 고인에게 건국공로훈장을 추증했다. 국가보훈처는 2001년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그를 선정하였다.

약도



참고문헌

- 권덕규, 『석농선생과 역사·언어』 『을지문덕』, 1948.
- 柳光根 (柳瑾一創刊 東亞의 總總編輯), 『記者半世紀』, 瑞文堂, 1969.
- 김명섭, 『석농 유근사료총서』, 한국학술정보(주), 2006.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태성 중·고등학교 앞에서 하차. 뒷길 현충탑 가는 길로 걸어서 7분, 현충탑 동편 담장 아래 20m 아래에 위치

주변 볼거리

- 현충탑: 용인 김량장동 통일공원 내

의병장 옥여 임경재 동상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임옥여(任玉汝, 1872~1907)는 용인 양지면 평창리 사람으로 본명은 경재(景宰)이다. 그는 누대로 무관장을 지낸 풍천 임씨의 후예이다. 1907년 당시 농상공부 주사 직을 맡고 있었으나, 고종의 강제퇴위를 계기로 관직을 버리고 항일투쟁에 나섰다.

1907년 8월 이금풍, 주창룡, 신규희 등과 함께 이천에서 창의하여 스스로 좌익장을 맡아 이천에 주둔한 일본기병대를 급습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8월 중순에는 이천 우편취급소와 순사분파소를 습격하였고, 광주 실촌면(實村面)에서 원주의병대와 합류해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임옥여는 포군 70여명을 모집해 용인 굴암산 일대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는 한편, 이천, 여주, 안성, 양평 등지에서 일본군을 습격해 큰 전과를 올렸다.

이어 1907년 9월 용인 원삼면 문촌리 고초골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고, 광주 상림(尙林)과 용인 백암 등지에서 유격대 활동을 펼쳤다. 임옥여 부대는 인근 지역 의병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쳤는데 정주원(鄭周源) 부대와 양지·죽산일대에서, 김봉

기(金鳳基) 부대와 광주, 여주, 이천 일대에서 합류해 유격전을 펼쳤다. 여러차례 교전을 벌이는 동안 많은 부하를 잃게 되자, 임옥여는 부대를 해산하고 피신하여 후일을 도모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10일 고향집에 잠시 들렀다가 용인 추계리의 송병준 별장에 주둔 중이던 일진회 회원들과 일본군에게 피체되었다. 그는 일본군 수비대와 친일파들을 크게 꾸짖으며 저항하다 현장에서 총살당하고 말았다.



〈임옥여 의병장의 훈장〉

1990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고, 1993년 6월 고향마을앞에 동상이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 의병장 옥여 임경재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 편, 《순국열사 의병장옥여임경재 약사》, 1993. 6.
- 김영섭, 「한말 용인 항일의병의 활동과 그 특징」, 《용인항토문화연구》제7집, 2006.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터미널에서 원삼행 10번 11번 버스타고 양지면 푸르메 전철마을 지나 평창 1리 정거장SK 나이츠프로농구구단에서 하차, 응골 제주요리전문점 앞에 위치
- 자가용 : 양지 IC 사거리 → 양지 파인리조트 방면 → 현대오일뱅크 지나 3분거리 SK나이츠프로농구단 앞 주차

주변 볼거리

- 세종옛돌박물관 : 양지면 양지리 산 6-1번지 ☎ 031-321-7001
- 양지파인리조트 : 양지면 양곡리 18-1번지 ☎ 031-338-2001~4

일제 곡물 수탈의 현장, 수여선 철로

치인구

수원-용인-이천-여주 일대(치인구 삼가동, 김량장동)



〈김량장동에 있었던 철로교각〉

수원에서부터 용인과 이천, 여주로 운행된 수여선(水驛線)은 용인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협궤철로였다. 1920년 경동철도는 총독부로부터 수원~여주간 철도부설 인가받은 이후, 1930년 11월 30일 개통식을 갖고 12월 4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삼가동 교각〉

수원역을 출발한 열차는 화성역과 원천역을 거쳐 용인의 신갈~어정~삼가~용인~양지~제일을 지나고, 오천을 거쳐 이천역에 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2단계로 이천~여주 구간공사를 계속해 1931년 12월 73.4km 전체구간이 완전 개통되었다.



〈1960년대 용인역의 모습(용인시내 현 GS마트 자리)〉

수여선 개설은 여주·이천·용인 등 경기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쌀의 반출을 원활히 하고, 일본인과 일본자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여주에서 인천에 이르는 철도는 총 125.4km로 연장되었고 용인 농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흡혈철도가 구축된 것이다. 해방되기전까지 수여선 침묵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스며들었던가? 용인산야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경동선은 1945년 해방이후 여타 사철(私鐵)과 함께 국철로 흡수되었으나, 도로교통의 발달에 따라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정부는 1972년 만성 적자노선 정리방침에 따라 수원~여주 구간의 폐지를 결정하였고, 결국 1972년 3월 31일 마지막 운행을 하였다.

약도



● 참고문헌

- 용인군 편, 《수여선 열차에 얽힌 시연들》 《내고장 용인 독립항쟁사》, 1995.
- 견수천, 「동경철도(수여·수인산)의 부설과 변천」 《안하사학》10집, 2003.

좌전 3·21 만세고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와 원삼면 좌항리 경계



〈좌전고개 용인 3·1운동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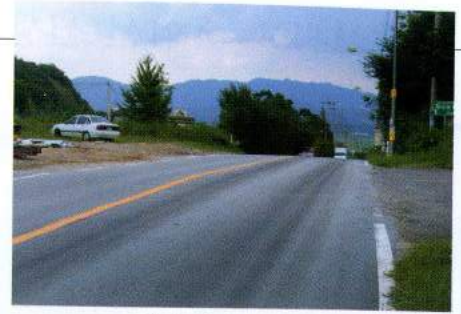
〈좌항리 가는 평창사거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3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39명이 다치고, 500여명은 일제에 체포되어 모진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좌전고개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5일 이봉현·김영달·김성남·이은표·이

용환 등이 원삼면 좌항리 이은표집에서 독립만세를 거행하기로 계획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3월 20일 밤 양지면 평창리 도창 마을에 거주하는 최상근의 주막에서 모임을 갖고 안명옥·최상근·김창연·황경준을 동지로 규합하여 마을사람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산봉우리에 봉화를 피우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3월 21일 자정 이후 최상근 주막에서 햇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내려오니 좌항리와 매희 주민이 합세하였다. 이들은 새벽 3시경 좌항리를 떠나 사암리로 향하여 제작한 태극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원삼면사무소에 이르자 고당리·문촌리 주민들이 합세하였다. 원삼면장을 앞세우고 외사면(현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경찰주재소로 가는 길목인 비둘기 고개에 이르렀을 때 개울 건너에서 경찰과 헌병대원이 발포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상당할채 해산하고 말았다. 용인시에서는 용인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곳 좌전고개에 만세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하고 2011년 4월 용인 3·1운동기념탑을 건립하였다. 이와 함께 용인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좌전고개 만세공원 입구〉



참고문헌

- 박환, 《용인지역의 3·1운동과 항일유적지》 《용인항토문화연구》제6집, 2005.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원삼면지』, 2005.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백암·죽산방면 버스(10번) 이용 좌전고개 하차
- 자가용 : 양지사거리에서 국도 17호선 따라 백암 죽산 방향으로 4km 직진하여 좌항리 방면 3·1만세운동기념공원 표지판 안 하차

주변 볼거리

-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산133-1 ☎ 031-322-8111
- 하균 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매희 산6
- 미평리 약사여래 입상 : 용인시 처인구 원사면 미평리 66-16 ☎ 031-322-8169

3대 독립운동가 오인수·광선 가족비

차인구

용인시 원삼면 죽릉리 청룡말



(기적비와 오희옥 여사)

원삼면 죽릉리의 독립항쟁 기적비는 의병장 오인수(吳寅秀, 1867~1935)와 그의 아들 광선(光鮮, 1896~1967) 및 손녀 희영(姬英), 희옥(姬玉) 3대에 걸친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다. 이 기적비에서 가까운 어현 마을에는 오광선이 태어나고 만주로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생가 터가 있다.

오인수는 1867년 원삼면 죽릉리 어현(느리재)에서 출생하였으며 1905년부터 용인·안성 등지에서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의병장 정철화 의병장의 중군장으로 활동하며 안성 매봉재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1907년 송병준의 아들 송종현이 이끈 토벌대에게 체포되어 8년의 옥고를 겪었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아들인 오광선을 만나 가족과 함께 살다가 1935년 67세로 사망하였다.

오광선은 본명이 성묵(性默)으로 삼악학교를 거쳐 서울로 올라가 상동청년학원을 다녔으며 1917년 21세 때 만주로 망명하면서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광선(光鮮)으로 바꿨다. 1918년 12월 신흥무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교관을 지냈으며 선배인 이청천과 무장독립군 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후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단에서 활동하다가 자유시 참변을 겪은 후 만주로 다시 돌아왔으며 1933년에는 대전자령(大甸子嶺) 전투에 참가하였다. 1937년에는 일본 관동군 참모장을 암살하라는 김구주석의 특명을 실행하다가 북경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끝까지 가명으로 버텨 3년형을 받고 1941년 11월 출옥하여 만주로 다시 건너가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광복군 국내지대 사령관을 맡으며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다.

부인인 정정산 여사 역시 남편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임시정부와 함께하며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며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부부가 합장되었다.

오광선의 장녀인 오희영은 1939년 창립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활동하다가 부군 신송식과 함께 중국 부양(阜陽)에서 활동했다. 정부는 부군인 신송식 지사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을, 오희영 여사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1969년 사망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며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부군과 합장되었다.

차녀인 오희옥 역시 1939년 유주(幽州)에서 한국광복선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하여 정보수집과 초모활동에 종사하였다.



(오광선 정정산 묘(국립현충원))

약도



● 참고문헌

- 김명섭, 《용인의 3대 독립운동가 연구서설》 (용인항토문화연구)5집, 2003.
- 박환, 《용인 출신 여자 독립군 오희옥여사 면담록》 (용인항토문화연구)6집, 2005.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원삼면지》, 2005.
- 김명섭, 김병기·김태근, 《특집한국 여성광복군 오희영 재조명》 (용인항토문화연구)8집, 2007.

●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시외버스터미널 및 원삼에서 원삼 청룡말 방면 버스(1번)이용 죽릉리 청룡말 입구 하차
- 자가용 : 원삼면사무소에서 죽릉리 방면4km 직진, 1.0km 어현 마을 이동

● 주변 볼거리

- 죽릉리 등차박물관 : 용인시 차인구 원삼면 죽릉리 산1-2번지 ☎ 031-333-6789
- 문수산 마애불 : 용인시 전인구 원삼면 문촌리 산25-1 ☎ 031-334-1728